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시



김병우 충북교육감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눈부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상이 여러분 가정마다 푸른 꿈으로 피어나고, 넘치는 인정과 사랑으로 따뜻한 새날 열어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2년여 이어온 감염병 확산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둠을 건다는 오늘의 정성이 미래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학교 현장 최일선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

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 교육 회복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희망의 동지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교육은 정성스럽게 뿌려놓은 희망 씨앗들이 아이들 가슴에 새로운 꿈으로 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이 학교 교육의 중심 가치가 되도록, 시공간을 뛰어넘는 교육, 삶을 기반으로 한 교육, 학생이 수업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교육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미래형교육공간 구축에 애쓰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기반을 다지고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제반 기기와 인력을 촘촘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튜디오를 확대 설치하고, 학내 무선망 구축, 1학생 1디바이스 사업을 추진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충북교육이 나아가길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새 역사를 만들며 힘찬 교육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

한 일이었습니다. 충북교육의 도전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교육 회복을 넘어 희망찬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정책추진 방향을 정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주도성과 시민성을 키워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은 교육 가족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정책 방향을 실현하면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채신(敎師採薪)'의 지혜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 가족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충북교육은 세계사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아이들 한명 한명의 행복한 삶을 아우르는 행복교육의 대장정을 펼쳐왔습니다.
 힘찬 호랑이해의 기상으로 손잡고 눈부시게 피어나는 충북교육, 봄을 향한 여정에 여러분께서 희망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용맹과 위엄의 기상이 서린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행복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꿈

을 펼치며 미래를 열어나가기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각종 교육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알찬 결실을 거뒀고,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부권 최초로 대전수학문 화관을 건립했으며, 대전메이커교육 지원센터와 대전AI교육지원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아울러,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울누리유치원과 대전도솔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 및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2022년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저마다의 꿈을 키워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추진하겠

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열어갈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실천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대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철 충남교육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호랑이의 기상으로 새 꿈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이 또다시 일상회복을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의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 전체 유아와 학생들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했습니다.
 충남미래교육 2030을 준비합니다. 충남미래교육은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흐름에 맞게 교육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해 교육과정, 학교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전환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인공지능 교육을 확산합니다.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과 365 실천 운동을 강화합니다.
 조속한 교육회복을 실천하겠습니다. 2022년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심리정서와 사회성, 신체 발달 저해를 극복하는 교육회복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실내 지원, 학교 지원, 학교 밖 기관 연계 지원을 견고히 해 촘촘한 학력 책임망을 입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교육공동체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교육은 임불역방(立不易方)의 자세로 한결같은 마음, 첫 마음 그대로 학생 중심의 철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입니다. 희미한 출구의 빛을 바라하며 하루하루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세종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를 응원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세종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삶과 배움에 보다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시대적 교육 의제와 마주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교육 회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종교육은 지난해 대부분을 전체 등교한 데 이어 교육 회복에도 첫발을 뒀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조심히 내디딘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높이고 부족했던 공부를 보충해 학습과 학력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 역시 건강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세종에서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실현 가능하고 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을 중

명해 보이고 단계적 확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각계와 의견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모든 아이에게 선생님의 온기를 온전히 전하게 될 것이며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세종교육의 노력은 작지만 큰 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세종교육이 한 단계 더 발 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 10년간 110개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특별'과 '자치'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도록 하고 이 역시 대한민국 교육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위기가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교육은 그 위기만큼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찬 새해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샷 평소 꽃지 해안공원

태안의 거울바다와 낙조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행 어떠세요?
새롭게 단장한 꽃지 해안공원 인피니티스튜디오에서
가족과 연인과 인생샷을 찍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